

Living the LOTUS

Buddhism in Everyday Life

10
2018

VOL. 157

開祖隨感

비명(悲鳴)을 이해하다

「자기 자식으로부터 「엄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부모는 속상하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궁지에 몰린 아이의 비명입니다. 말과 마음은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탁도 안했는데 왜 나 같은 것을 낳은 거야?」 하는 말에 화가 난다면 부모로서 아직 미숙합니다.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부모에게 내던졌는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부모의 애정입니다. 그런 여유가 없으면 자식이 내지르는 심한 말에 걸려서 화를 내기도 하고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내 자식의 입에서 나왔는지 그 마음 깊은 속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진관(真觀)」입니다.

일이 끝난 샐러리맨이 집에 가는 도중에 한 잔 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상사에 대해 험담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지만 이것도 비명일지 모릅니다. 관세음보살이 어떠한 사람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비명 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이해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힘을 몸에 지니고 싶습니다.

개조수감 9 P. 172-173

Living the Lotus Vol. 157 (2018年10月)

【発行】立正佼成会 国際伝道部

〒166-8537 東京都杉並区和田2-7-1

普門メディアセンター3F

Tel: 03-5341-1124 Fax: 03-5341-1224

E-mail: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編集責任者: 齋藤 高市

編集チーフ: 金尾 江利子

翻訳者: 金 恩美

校閲者: 成 淑姫

編集スタッフ: 国際伝道部スタッフ

입정교성회는 1938년 개조 니와노 닛교, 협조 나가노마 묘코에 의해창립된 법화삼부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는 재가 불교 교단입니다.

가정,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살려서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는 니와노 니찌코 회장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는 물론, 각 계 사람들과 손을 잡고 국내외 여러 가지 평화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 -Buddhism in Everyday Life- (법화경에 살다- 생활속의 불교)라고 하는 타이틀에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매일 생활 속에 살려서 흙탕물에 피는 연꽃처럼 인생을 풍요롭게 그리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라는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불교의 가르침을 인터넷을 통해 발신하고 있습니다.



會長法話

자타가 함께 즐거운 정진을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 (庭野日鑛)

나무에 단풍이 드는 것처럼

「단풍 든 잎, 그것도 떨어지는 벚꽃일까」

달력상으로는 가을을 맞이한 이 시기의 정취에 대해 시인인 요사부손(与謝蕪村)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벚나무 잎이 다른 나무보다 먼저 단풍 들어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한 시입니다만, 봄꽃이 활짝 피어 떨어지는 모습을 같이 연상하며 주어진 생을 한결같이 완수해 내는 벚나무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매사에 열심히 하고 온 힘을 다할 때 노력이나 정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때문일까요. 한결같은 노력 정진이라고 하면 고되고 힘들다는 느낌이 듭니다. 신앙에서도 「정진, 정진, 죽을 때까지 정진, 다시 태어나도 또 정진」이라고 하는 의욕과 분발심이 넘치는 말을 접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만 압도당하고 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진이란 본래, 기를 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도 고통을 견디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진(精進)」의 「정(精)」이라는 글자는 벼를 찧어 하얀 쌀을 얻는 것(정백미 精白米)에서 나온 말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즉 순일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말합니다. 또 「정(精)」이라는 글자에는 「근본」 또는 「본래의 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주 입에 담는 「정진합시다」란, 「순일한, 자신의 본래의 힘을 똑바로 발휘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벚나무 잎이 단풍들어 떨어진다고 하는 자연의 섭리는 정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내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또한 끊임없이 창조·변화하는 자연의 일부이므로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근행하는 것이 곧 정진이며 「팔정도」의 「정정진(正精進)」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본래의 나와 만나다

「다만 우리들 인간은 수목과 달라서 자기 본위의 아(我)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다 싫다, 선이다 악이다 등의 자신의 잣대가 있어서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진리에 따르도록 궁리를 하는 것, 즉 그 때 그 때에 맞춘 정진의 자세를 석존께서 여러 가지로 설하여 제시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신앙이 내가 뿌린 씨앗이며 단련이 비이다 / 지혜가 나의 쟁기이며 부끄러움이 쟁이자루이다 / 마음이 잡아매는 밧줄이며 내성이 호미날과 작대기이다 / 몸과 말을 삼가고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는다 / 진실을 지키는 것은 나의 낫이다 / 유화는 소의 멍에를 벗기는 것이다……」

저의 졸작 『마음밭을 간다』 에서도 소개한 시로, 「부끄러움」 「내성」 「몸과 마음을 삼간다」 「과식하지 않는다」 「진실을 지킨다」 「유화」 등, 시 속에 나오는 이러한 자세를 통해, 때때로 얼굴을 내미는 자기 멋대로인 마음을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본래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 중 그 어느 것도 기를 쓰고 온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함께 마음이 즐거워지는 궁리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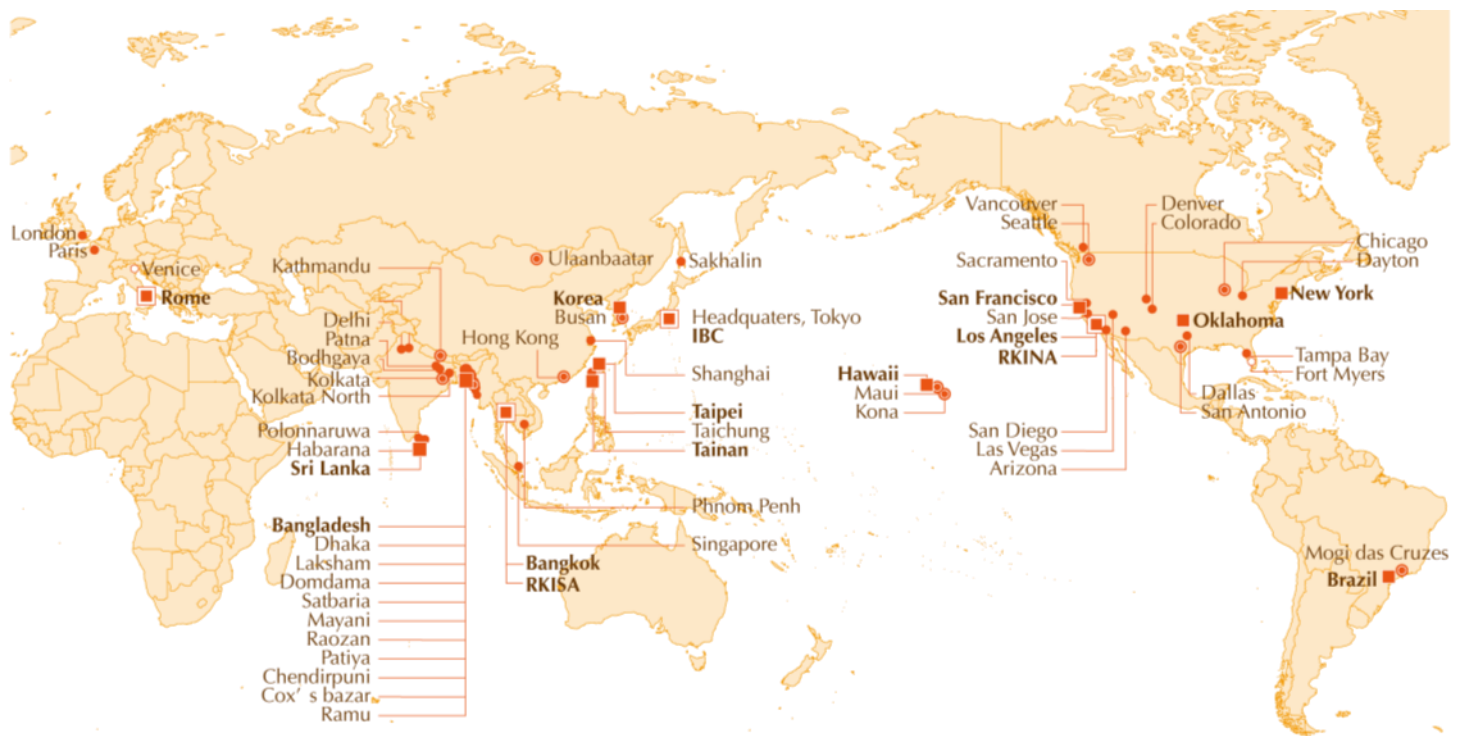
말을 조금 조심하는 것으로도 조화가 탄생하고 유화하게 대하는 것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이 풀립니다. 약간 부족하게 먹었을 때 몸이 편한 것은 누구든지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시의 구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이 「정정진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맹세」를 이전에 한 기관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할 일을 하자」 「사람들이 다가가기 쉬운 내가 되자」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자」 「사람들에게는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자」 「절대 화내지 않는 내가 되자」. 이 점을 매일 반복하며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때로는 반성하면서 불도를 걷는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란, 정진을 통해서 본래의 자신을 만나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본래의 자신이란 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불성입니다.

(『佼成』 2018년10호)



Living the LOTUS



🌸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BRANCHES 🌸



We welcome comments on our e-newsletter Living the Lotus. Please send us your comments to the following e-mail address.
E-mail: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